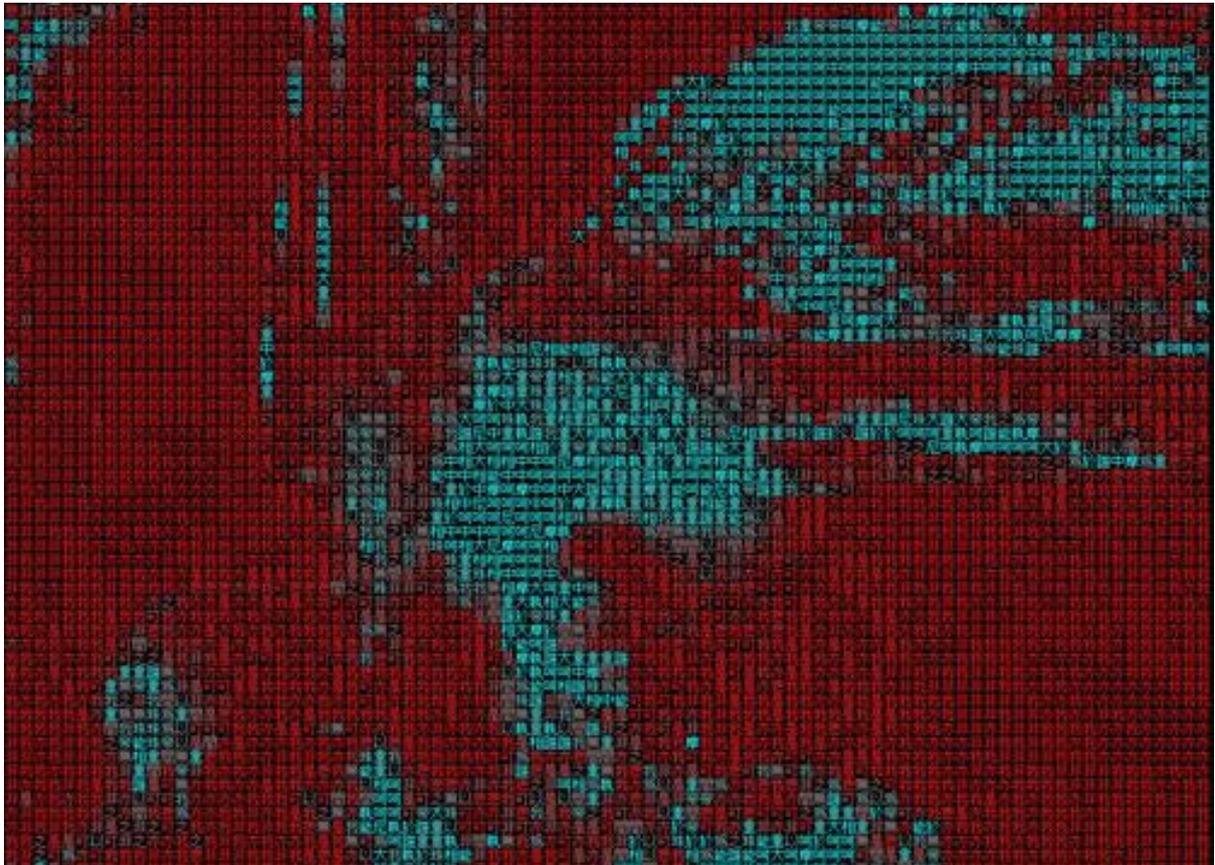


Ku, Ja Young

Solo Exhibition

2008.11.14(Fri) – 12.11(Thu)



Tracing Types_RG

Year: 2008

Dimension: Dimensions variable

Medium: Digital camera, LCD panel, computer, JAVA 32" (58.5 x 76 cm)

비디오 아티스트, 인터랙티브 아트의 작가로 알려진 구자영의 신작을 만나볼 수 있는 '구자영 2008 개인전'이 갤러리 시몬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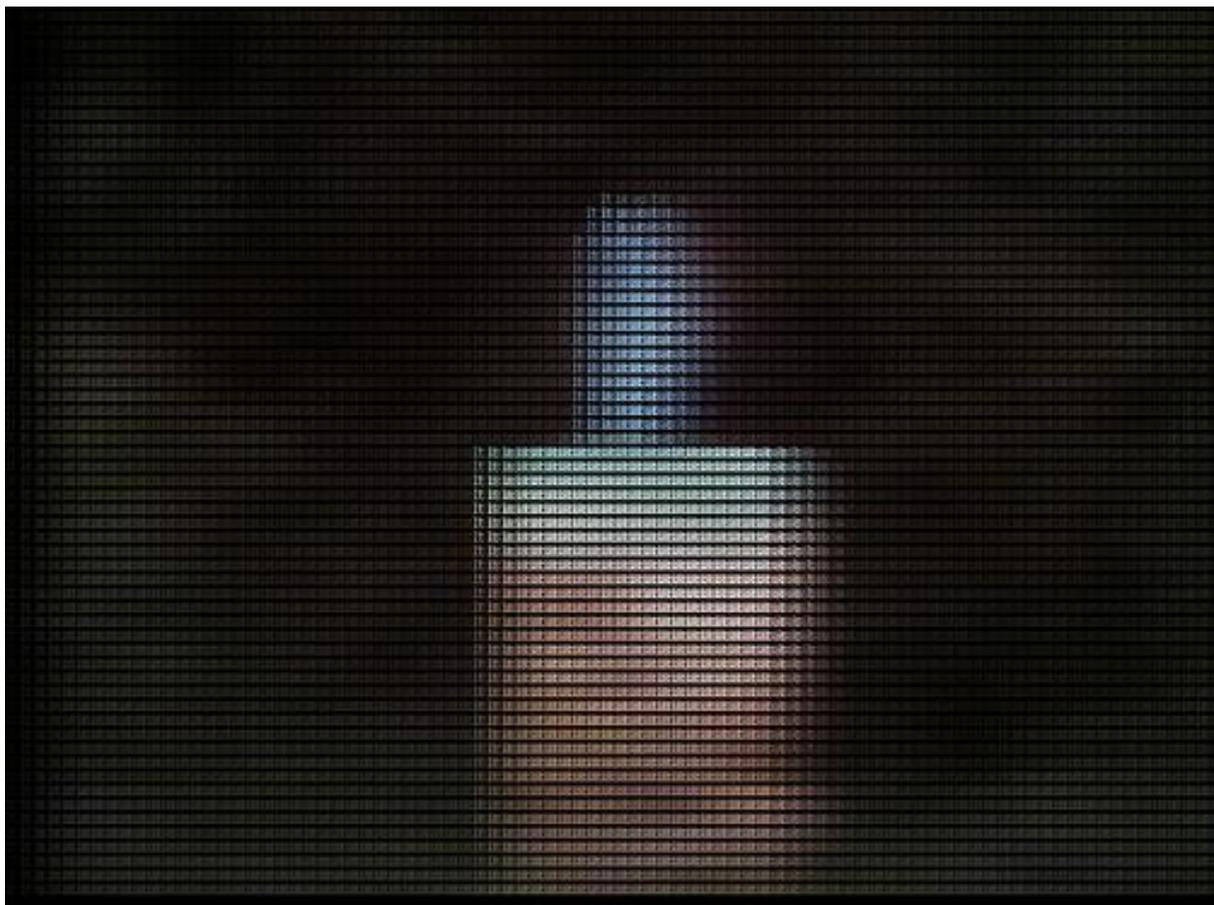
시간과 장소, 이미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해온 작가의 이번 전시의 화두는 '실제와 환영'이다. 이번 개인전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이전의 작업과 비슷한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작품에 대한 미학적 해석과 이미지의 형식적 재현에 있어서 작가의 사상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적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

먼저 구자영은 '실제와 환영'이라는 본 전시의 화두를 풀어내는 방법으로 '작품과 관객'이라는 재료로 풀어내고자 했다. 구자영의 인터랙티브 작품은 관객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다. 관객이 작품으로 다가가는 순간, 작품은 관객의 모든 움직임을 잡아낸다. 작품 속에서 관객의 움직임은 크고 작은 글자의 명함이나 색상의 변화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는 작품은 작품을 위해 존재하다가 관객

이 그 작품 속으로 편입되는 순간, 작품은 관객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실제와 환영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가의 방법론을 작품을 통해 소개한다. 관객이 다가간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실제의 움직임과 화면의 보여지는 이미지간에 시간차를 두게 된다. 이는 관객의 특정한 동작을 객관화하며 작품으로 3인칭의 시점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조우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진짜의 나도 역시 나고 가짜의 나도 역시 나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어느 것이 나라고 할 수 없구나.'라는 텍스트로 만들어진 그 어느 것을 실재나 환영이라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의 향연은 관객을 작가가 거쳐온 깊은 사색으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다.

1908년 입체파가 등장해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은 지도, 뒤상이 계단을 '계단을 내려오는 나부, Oil on Canvas, 1912'를 완성시킨 지도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후, 여러 작가들은 비디오 아트, 옵티컬 아트, 키네틱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에 이르기 까지 광대한 이론과 방법들로 그 개념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발전 선상에 우뚝 서 있는 구자영의 새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미학적 해석은 물론, 그 미래적 가치도 점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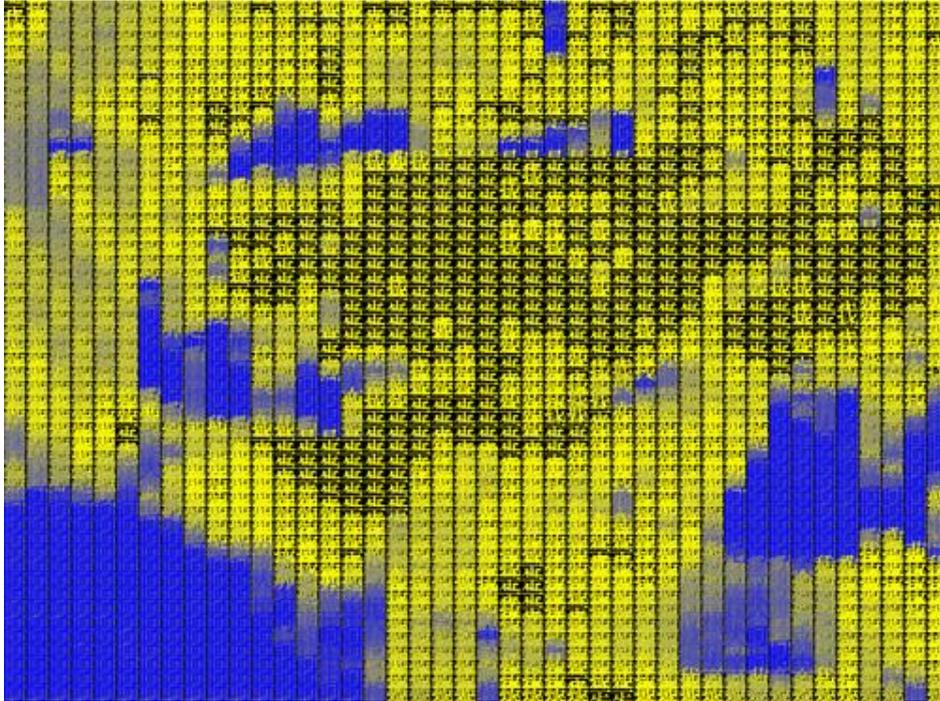


Candlelight

Year: 2008

Dimension: Dimensions variable

Medium: Digital camera, LCD panel, computer, JAVA 42" (89.2 x 129.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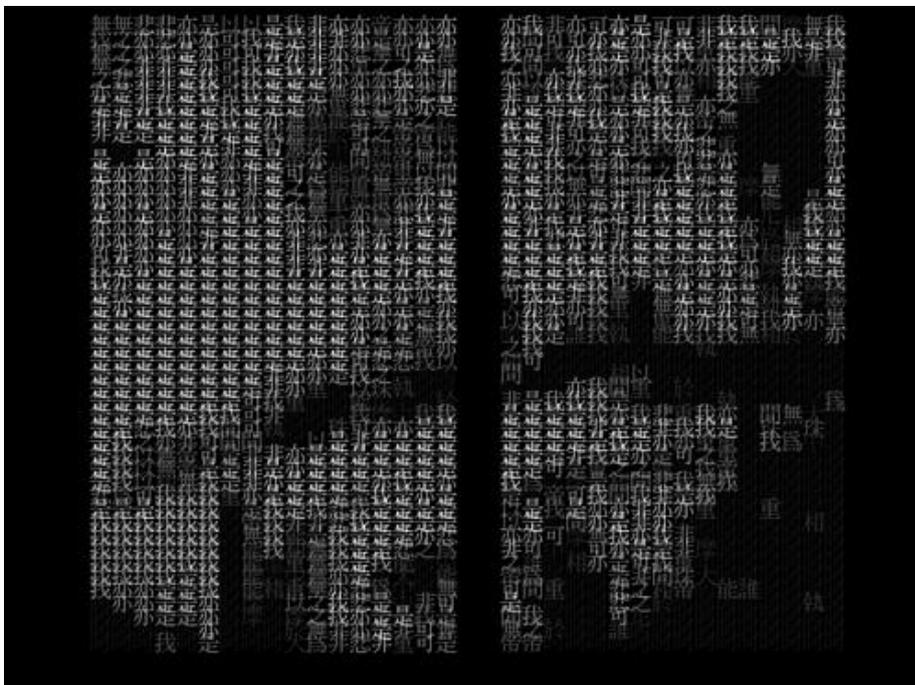


Tracing Types_YB

Year: 2008

Dimension: Dimensions variable

Medium: Digital camera, LCD panel, computer, JAVA



Tracing Types_BW

Year: 2008

Dimension: Dimensions variable

Medium: Digital camera, LCD panel, computer, JAVA